

# 한동훈 오늘 광주 방문 '관심 집중'

### 국힘 비대위원장 취임후 처음

### '이재명 피습' 여파 경호 고심

### 5·18 참배, 광주시당 신년회 참석

4일 광주를 찾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지역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으로 한 위원장의 호남 방문에 경찰 등도 바짝 긴장하고 있으며, 그가 내놓을 메시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한 위원장이 총선 인제 영입을 위한 당 인재영입위원장을 직접 맡을 것으로 보여 호남에 예정된 '비례대표 의석수' 등도 총선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3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단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어떤 대비가 필요할지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며 "한 위원장의 동선과 군중이 밀집하는 지점, 참여 단체 등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 측에 경비 인력 증원 요청을 하고, 잘 안된다면 자체적으로 증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여당 사령탑에 오른 뒤 처음으로 광주를 찾게 되는 한 위원장은 4일 오전 국립 5·18민주묘지에 참배한 뒤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광주시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어 오후에는 정주로 이동, 충북도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한다.

광주는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으로, 보수당인 국민의힘 인사들은 과거 광주를 방문했다가 현지 진보단체들의 항의와 반발에 직면한 적이 있다.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황교안 대표는 2019년 5월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았다가 광주송정역에서 시민단체로부터 물세례를 맞았고, 5·18 민주묘지를 방문했을 때 육탄 항의와 함께의 자·발병 등이 날아들기도 했다.

한 위원장이 전날 대전-대구를 방문했을 때도 당원과 지지자를 포함한 군중이 대거 몰리면서 한 위원장을 에워싸는 바람에 통제가 어려웠던 점을 감안, 국민의힘은 돌발 사태에 대비한 강도 높은 안전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년 신년 인사회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와함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협박하는 게시글을 SNS에 올린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은 3일 협박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 2일 밤 9시 40분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한동훈이 내일 광주경찰청 오면 디진다. 4일 한파끼리 합시다"고 글을 올

린 혐의를 받고있다. 이에 3일 새벽 1시 20분께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 A씨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한동훈 "총선에서 불합리한 격차 해소 집중"

### 국민의힘 비대위 회의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교통, 안전, 문화, 치안, 건강, 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불합리한 격차를 줄이고 없애는 데 힘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격차 해소는 정치가 할 일이고, 정치만이 해낼 수 있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총선은 정치권이 국민의 눈치를 많이 봐야 하는 때고, 그렇기 때문에 평소 같으면 '그게 되겠어' 하는 일이 실제로 될 수 있을 정도로

정치적 상상력이 현실로 이어질 수 있는 장(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격차 해소) 실천 방안에 대해서도 정교하게 준비해 설명해 드리고 실천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동료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바로바로 반영하겠다"고 다짐했다.

한 위원장은 전날 대구시당 신년인사회에서도 "개별 시민의 삶이 힘들다. 그건 여러 불합리한 격차가 사회 곳곳에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그 격차를 해소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총선 공약에서 '격차 해소'에 주요점을 두겠다고 소개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격차'로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과 통학이 참 고통스럽고, 밥거리가 두려운 곳들이 곳곳에 있다"며 "대전-부산 시민이 뮤지컬 하나 보러면 KTX 타고 서울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사회 곳곳의 불합리한 격차들은 동료 시민들의 연대 의식을 약화하고, 공동체를 위협하며, 나아가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인해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우리는 분명히 선진국이다. 그런데도 개별 동료 시민들의 삶은 참 힘들다"며 "선진국 수준에 맞지 않는, 전반적인 생활에 뿌리내린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해야만 시민들의 현실의 삶이 나아진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尹 "국민 바라보며 민생 경제위해 온 힘"

### 5부 요인 등 각계 대표 청와대 초청 신년 인사회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으로 5부 요인을 포함한 각계 대표를 초청해 신년 인사회를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한 해 대내외 여건이 무척 어려웠지만,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면서 "새해에도 더욱 비상한 각오로 국민만을 바라보며 민생 경제를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행사는 김진표 국회의장·조희대 대법원장·이종석 헌법재판소장·한덕수 국무총리·노태약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과 경제계·노동계·종교계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재욱 원내대표도 자리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한 자리에서 만난 것은 한 위원장 취임 이후 처음이다. 전날 부산 방문 도중 습격당해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당 관계자들은 참석하지 못했다.

이러한 행사에서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건배사를 했고, 5부 요인들과 한동훈 위원장, 장종현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의 신년 덕담이 이어졌다. 한 총리는 마지막으로 신년 다짐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는 다과와 환담을 포함해 약 40분간 진행됐다.

어려운 국민 경제 여건을 감안해 축하 공연을 없애고, 어린이 합창단과 국방부 성악병의 애국가 제창으로 대신하는 등 간소하게 행사를 치렀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학생 과학발명품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국지성 학생, 의식을 잃고 쓰러진 시민을 구조한 이원정 간호사와 강태권 육군 대위 등 국민대표도 행사에 초청됐다.

윤 대통령은 국민대표 참석자를 직접 소개하며 각별히 격려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부터 '국민과 대통령이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타이틀 아래 새해 정부 업무 보고를 받는다.

윤 업무보고는 지난해 청와대 영빈관에서 부처별로 진행된 업무보고와 달리, 주제별로 다양한 현장에서 대통령이 국민, 전문가들과 토론하는 형식으로 약 10회에 걸쳐 진행된다.

업무보고에서는 '민생'과 '개혁'의 틀 속에서 주택, 일자리, 중소기업, 국민 안전, 돌봄, 교통, 의료 개혁, 미디어 정책, 저출산 대책, 에너지 정책 등을 다룰 예정이다. 4일 첫 번째 업무보고 주제는 '활력있는 민생경제'다. 업무보고 장소도 해당 주제와 관련된 정책 현장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주택'을 주제로 10일 열리는 두 번째 업무보고는 노후신도시 재개발이 예정된 지역에서 열리고 주제별로 산업단지, 청년창업 공간, 대학교, 광역 교통시설사업 예정지, 군부대 등이 검토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윤 대통령이 강조해온 현장·민생 중심의 국정운영 기조가 새해 정부 업무보고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총선 브리핑

# 이병훈 "이낙연 전 대표 창당 계획 철회돼야"

### 광주 동남을 재선 도전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국회의원선거(총선)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남)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창당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일 민주당 광주시당 당직자들과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창당은 유감스럽고 국민의 뜻과 배치되는 시도"라며 "5·18 정신과 김대중 정신의 핵심은 화해와 통합을 통해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것이다. 신당은 이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여론이기 때문에 이 전 대표의 창당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2대 총선에서 정부 여당 심판을 위해 민주세력의 통합이 필요한 상황에 국민의 지지와 공감을 받지 못하는 신당 창당에 대한 철회를 요구한 것이다. 실제 제20대 총선에서 안철수 의원이 창당한 국민의당은 창당 2개월 만에 호남에서 새바



람을 일으키며 국회에 입성했지만, 현재 국민의당 참여 인사 대다수가 국민의힘으로 옮겨가는 등 신당이 권력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 의원은 "지금도 국민을 지키고 민생을 살리려는 절박함을 바탕으로 모두의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당의 단합을 강조했다.

그는 당내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가 이번 총선을 이기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며 "지도부 판단으로 선거를 이길 수 있는 구조, 중도층을 끌어들이 수 있는 방안이 나오길 기대하고 당내에서 비대위에 대한 여러 목소리가 나오면 좋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

# 보험사기 ZERO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h4>신고 방법</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li> <li>각 보험회사 대표번호</li> <li>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li> <li>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li> </ul>	<h4>처벌 사항</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년 이하 징역</li> <li>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li> </ul>
<h4>신고 포상금</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발 금액에 따라</li> <li> 최대 10억원 지급</li> </ul>	

경찰청

금융감독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